

:: 간증 ::

:: 빛이 되리라 ::

# 실명된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언젠가는 간증해야 한다고 말하며 살았는데, 2023년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갑자기 작년 기도원 집회 때 목사님께서 저를 안수해주시는 영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간증문까지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젊고 건강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아쉬울 것 없이 살았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건축사업을 하시던 부모님과 미국에 살던 남동생이 잠깐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로 가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는 듯했으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금 폭탄, 내부 사정으로 어려워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저는 그 모든 원망을 가족들과 남동생에게 돌리며 젊은 시절 열심히 벌어놓은 나의 재산과 노력을 빼앗겼다는 절망 속에 매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즈음에 저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 여러 번 응급실을 찾았고, 분당에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아도 모든 게 정상이라며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은 쇠약하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과와 협진이라도 해달라고 했고, 결국 혈액정밀검사를 받은 후 열흘 만에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멍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주님~' 외치면서 며칠을 울고만 있는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부터 최근까지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필름이 지나가듯이 짝짝 보여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들을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실 환자들이 보건 말건 영영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있던 동생이 연락이 와서 제 상황을 가족들이 다 알게 되었고, 서울의 모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친척 동생한테까지 알려지면서 서울성모병원이 백혈병으로 가장 유명하다며 주변의

료진들의 인맥까지 동원하여 서둘러 예약을 잡아 주었으나 빨라야 두 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급성이라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급한 상황이었으나 그들은 순서를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암담한 상황에도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만 계속 나오는 것이 저조차도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문득 예전 할머니를 따라 몇 번 이초석 목사님 집회를 참석한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교구의 권은희 전도사님에게 부탁하여 목사님을 만났지만, 코로나로 개인 간 접촉을 금하던 날이라 제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머리에 안수만 받았습니다. 그 후 목포에서 성당을 다니는 이모에게 전화가 걸려와 신부님이 아는 병원이 있는데 부탁은 해보겠다고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안 돼 병원에서 연락이 와 저는 기적처럼 진단 후 보름 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씩 세 차례의 항암을 마치고 이 후 네 번째 한 달은 이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무균실에서 각종 항암제를 열흘 가까이 투여받고 부작용으로 고통받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져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곳은 치료와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곳을 실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밥 한 끼,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약 먹는 시간을 빼고는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며 울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영상을 몇백 번 반복해서 들었고, 그 귀중한 시간을 통해 병실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지만, 8개월간의 항암 치료 중 여러 번 부작용의 고비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고, 위기가 올 때마다 주님께만 매달리며 기도하던 중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증으로 반쯤 의식이 없을 때 병실 천정에서 심하게 흔들어진 단발머리를 한 귀신이 한 눈이 먼 채로 저를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정신이 혼미하던 때라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 눈을 비벼 다시 뜨고 정신 차리고 봤는데 정말 선명하게 귀신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설교 영상을 통해 귀신을 대적하는 연습을 해왔기에 저 귀신을 무조건 쫓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운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

하오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단전까지 끌어올려 외치는 순간 정말 감쪽같이 그 귀신이 사라졌고 저는 혼절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제가 깬 즈음 정말 이상하게 몸이 가볍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작용으로 힘들어했던 제가 소변줄과 기저귀를 빼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인데 기증은행에 있는 35만 명의 유전자와 저와 단 한 명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찾아야 했는데 유일하게 검사가 가능한 건 미국으로 간 남동생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온 동생이 검사를 했더니 저와 유전자가 90% 가까이 일치하여 거액의 이식 비용을 대부분 국가의 보험으로 적용받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동생 원망만 하던 제모습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원망과 미움이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의 조혈모세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을 받으려고 다시 입원하여 마지막 항암과 방사선 등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눈이 실명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항암과 조혈모 세포이식이라는 생명과 직결된 더 급박한 치료가 있었기에 병원에서도 실명 치료는 시작도 하지 않더군요. 힘들게 한 달여 간의 이식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던 찰나 갑자기 항암치료 중 봤던 눈먼 귀신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실명도 귀신의 짓이구나.' 싶어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 면역저하자였지만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고, 목사님께 안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수받은 후 실명되었던 쪽 눈이 눈뜨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점점 눈뜨는 것이 편안해졌고 거의 안 보이던 시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짧은 거리는 운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백혈병과 실명을 치료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더욱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과 저의 간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파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외로이 있었던 그 병실 안에서 강력한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남교구 안지원 집사

# 내 생각 지켜내기

요즘 스스로 노력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매 순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불안, 걱정, 근심, 불평불만, 짜증, 미움과 같은 부정적 생각들이 엄습해오곤 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악한 영적 존재가 주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런 악한 영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단 한 순간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해내는 나의 방식은 이렇다. 첫 단계는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 들어왔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다. 무엇이 지금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짜증나게 했는지를 돌이켜 찾는다. 조금만 예민하게 생각을 집중하면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즉시 귀신을 쫓는다. '아! 이 생각을 타고 네가 들어왔구나.' 하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 마지막 단계는 그 불안함을 야기한 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귀신 쫓고 해결책을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답답하게 별일 아니라는 생각,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금방 해낼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평안이 찾아온다.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나의 프로세스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악한 영적 존재는 우리 생각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필사적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바로 그 순간 대처해야지, 나도 모르게 그 부정의 생각에 심취하는 순간 점점 부정에 몰려다 결국 최악의 길에 다가선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방향으로든 나를 움직이는 것이 결국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사수해내야 한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장명훈 집사

joshua@hanmail.net

**2023년 하계산상집회** 2주차: 8. 21(월) ~ 24(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8월 20일 (제121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 속지 마라

유언비어(流言蜚語), 이는 아무 근거 없이 퍼지는 소문을 말한다. 이 소문은 마침내 진실인 양 버젓이 사람들을 속인다.

요즘 서울성전 이전에 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다. 처음에는 “~카더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대’로 바뀌어 성도들을 당구대에서 당구공 굴리듯 하고 있다. ‘어느 교회를 인수한다더라’, ‘어디로 간다더라’, 그러나 모두 No!

이런 유언비에 속으면 안 된다. 언젠가 어느 성도가 내게 와서 “목사님, 많이 섭섭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던데요.” 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겠는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내게 물어 야지, 내가 죽었냐?”였다.

일이 확정되면 내가 직접 발표한다. 내가 죽었는가? 내게 물어야지, 왜 헛소문에 동조하고 있는가? 본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마귀도 동시에 일을 시작한다. 마귀가 누군가? 거짓의 아버지. 그 마귀의 전법은 꾀기를 박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꾀기를 박아 갈라놓은 전례가 있다. 그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목사 와 성도 간에, 성도들 간에 꾀기를 박아 분열을 조장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언비어 날포다. 거짓으로 성도들을 헛갈리게 하고, 목자를 못 믿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와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잠 25:2). 왜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성전 이전 부지에 대해 나는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는다. 대리도 진행하지도 않는다. 내가 직접 편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느2:12).

지금 우리는 하나 될 때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라고 내가 누차 말했다. 침묵하며 기도하는 당신이 가장 위대한 자다.

곧 좋은 소식을 전할 테니 유언비에 신경 쓰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할렐루야!

# 주님, 어떻게 능력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는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그는 명석한 두뇌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목회를 시작했다. 완벽해보였다. 그러나 그의 목회는 실패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는 목회를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바다로 나가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말씀하셨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서울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작정기도 마지막 주간에 산상집회가 열렸다. 2주 후면 서울교회는 KBS88체육관을 비워주고 나가야 하기에 성도들은 간절함으로, 절절하게 더욱 기도에 전념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먼저는 목사님의 기도요,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함께 21일 작정기도하자.

목사님은 첫날 ‘주님, 어떻게 능력이 떠나지 않았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제가 늘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어떻게 능력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답은 참 심플했습니다. ‘나처럼 하던 일을 반복하라.’

주님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충만하사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상을 지닌 곳입니다. 저는 주인에게 비범이 뭐냐고 물었더니, 선대(先代)가 하신 그대로를 매일 반복한 것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면 누구나 영·혼·육이 성공합니다.

세계적인 골퍼 타이거우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를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와 가족이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세계가 안다.’ 맞습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를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가 알고, 사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알고 신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매일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반복이 달인을 만들고, 전문가를 만들고,



2023 하계산상집회(8월 14~2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하시면 순식간에 흥해가 갈라지고, 한 순간에 여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집회 첫 시간, 단에 오르신 목사님은 먼저 폐루집회를 위해 21일 작정기도를 요청하셨다. 우루과이의 이현숙 선교사의 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집회 장소에 사람은 없고, 군인들만 가득했고, 뭔가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는 꿈이었다고 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목사님의 해외선교는 늘 물 위를 걷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탈하고 성공한 것은

세계에 나가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능력이 떠나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나처럼 하던 일을 반복하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저는 예수님처럼 아침저녁 2시간씩 기도합니다. 집회에 나가면 7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저를 보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요동하며 떠나가고, 병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150년 전통의 음식점에 간적이 있습니다. 음식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고, 명가의 위

반복이 당신을 영적 승리자로 만듭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늘 최선을 다하시지만, 특히 대사(大事), 대업(大業)을 앞두고는 더욱 몸을 불사르신다.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몸짓이다. 첫날 자정이 넘도록 설교와 축사를 하신 목사님은 이튿날 오전에도 단에 오르셨다. 그런 목사님을 주님이 어찌 외면하실까. 분명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이루리라.”

신묘수 전도사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기도원집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원집회



추억이 쌓이는 기도원집회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1:14~16)

## 명품이면 뭐하냐? 내 몸에 맞아야 명품이다

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유리병에 망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원숭이는 그 망고를 먹으려고 손을 유리병 속에 넣어 망고를 움켜잡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는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진이 다 빠지도록 원숭이는 유리병과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사냥꾼에 잡히고 맙니다. 손에 쥔 망고, 그것이 '욕심'입니다. 망고만 놓으면 살 것을, 손만 펴면 살 것을, 그것을 놓지 못해서 죽는 것이 어디 원숭이 뿐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두고도 부하의 아내를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당하고,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란 닢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망고만 보이거든요.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화(禍)가 된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하나님과 비견하려는 욕심을 가졌던 루시엘 천사장, 그 욕심이 발각되어 흑암, 곧 음부인 이 땅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곧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놈은 제 버릇 개 못 주고 그 밧을 인간에게 놓습니다. 그놈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조금 더, 하나만 더' 하며 욕심을 불어넣어 결국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놈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으려고 노립니다. 저는 요즘 서울성전이 이전할 부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까딱하면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넓은 곳, 좀 더 가까운 곳에 집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기에 기도로 저를 다스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람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맞는 것이 좋은 것이요, 내게 맞는 것이 명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것이니 얼마나 좋고 튼튼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고 자기 입던 편한 옷을 입고 나가 거인 골리앗을 때려 잡았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내게 안 맞으면 그것은 짐입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에 갔을 때 실업인 세미나에 참석했던 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명품 구두를 선물했습니다. 무려 300만 원짜리랍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작아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행인 한은택 목사에게 줬습니다. 명품이니까 하고 욕심을 내서 신었더라면 제 발은 부르짖을 것이고, 아마도 발톱도 성 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못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성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는 말씀은 맞는 걸 주신다는 말씀이지 무조건 '크고 비싼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른 옷을 입히고는 "명품이니까 무조건 입어라." 하겠습니까? 크면 좋겠지요. 가까운 곳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1t 트럭에 5t의 물량을 싣는 것과 같아, 결국 타이어가 터져 사고가 날 것이고, 차에 실었던 것들이 길에 쏟아져 물품도 망가지고, 다른 차량에까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1t 트럭에 5t의 물량을 얹어 성도들을 누르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 떠나면 크고 멋진 교회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좋은 교회, 명품 교회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행복해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소망은 다릅니다. 욕심은 마귀의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소망을 이루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잘 치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요. 준비해야지요. 공부

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공부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늘 말

하지 않지만, '무한대(∞)×0=0'이지만, '무한대(∞)×1=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우리가 준비할 때 무한히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눅 14:28~30).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재료와 건축할 사람까지 준비했습니다. 비록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준비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했기에 솔로몬이 그것을 토대로 무한히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준비된 자이고, 계획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계획된 자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대형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하지 않고, 예산 편성해보

지 않고 그냥 '믿음이다' 하고 덤뻐기 때 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욕심을 버리고 준비된 상황에 맞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여쭙봐야 합니다. 고속터미널 옆에 땅끝예수전도단 건물 기억하지요? 당시 그 건물을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지요. 저는 물론 우리 성도들조차도 좋아서 기분이 붕붕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꿈을 꿔했습니다. 줄로 연결된 큰 배 두 척이 잘 가다가 본부 건물에 부딪쳐 산산조각 나는 꿈이었습니 다. 그 두 배는 서울교회와 인천교회였습니다. 또 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김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맛있게 보여 먹으려는 순간 경찰이 수갑을 제 손에 채우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건물주가 감옥에서 나오고 제가 대신 들어가는 꿈도 연이어 꾸었습니다. 꿈을 깬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 건물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다들 '왜 그러느냐,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다, 목사님에게만 주는 특혜다'라는 말로 저를 현혹했지만, 저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할 만큼 저는 어리석은 자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제 꿈대로 옥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그 건물에 욕심나서 인수했다면 망고를 쥔 원숭이 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욕심인지 소망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잠16:9).

### 욕심은 마귀의 닢이다 욕심은 너를 죽인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맙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징비록, 이 책에서 서에 유성용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쟁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당시 조선 조정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의주(義州) 행재소(行在所)에서의 일이었다. 당시 선조는 왜적의 갑작스런 침략에 놀라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몽진(蒙塵)을 떠난 상태였다. 그런데 의주에 다다라서도 그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결국 목숨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명나라로 어가(御駕)를 옮기겠다 결정하기에 이른다.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자기들의 목숨을 도외시하고 창칼을 들고 일어난 때이다. 이 때문에 유성용의 장탄식은 더욱 길어졌고, 대신들의 간언이 이어져 결국 명나라로의 파천(播遷)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어쩌면 임진년에 시작된 전란이 7년이나 지속되어 온 나라가 찢터미로 변한 것도 선조의 지도력 결핍이 가장 큰 요소였을 것이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가정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서양 속담에도 '사자가 이끄는 양 무리가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보다 낫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리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번 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작정 기간 중의 일이다. 어느 주일,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 "하나님,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게 하옵시고..."

서울 성전 이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총회장님께서 마음 졸이고 계실 터다. 이미 정해진 그 짧은 시일 안에, 그 많은 성도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야 할 터라 애달픈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로마 제국이 천 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지력은 바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자유 또한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서울 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는 오늘로써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 입성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뚫은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때다.

우리 앞에 놓인 '성전 이전'이란 절대 과제는 총회장님 홀로 감내하셔야 할 십자가가 결코 아니다. 은혜받은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고 마땅히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 어떻게 평가될까?

여보게!  
강반석 목사님과 정광훈 장로님이 소천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추억하면서 하는 말은 이것이었네.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구나."  
"정말 깨끗하게 살다 가셨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셨다." 등등...  
우리 삶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정확하게 평가된다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남는 자들이 정확히 말해주지.  
어느 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직원 모두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도 깽뚫혔다네. 행여 사장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다들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했고, 생뿔을 내서라도 분에 넘치게 충성했지. 그런데 막상 그 사장이 죽었을 때는 달랐네. 장례식장은 싸늘했고, 문상객도 밖에서는 혀를 찰 뿐이었다네. 왜 그랬을까? 그 사장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살아 있을 때야 그 권력 앞에 위장했었지만, 그가 사라지니 진심대로 행한 것이지.

여보게!  
누군가 그랬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 인생이 보인다고. 자네는 어떻게 기

역될 것 같은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후대가 '평생을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로 충성되어 살다가 이초석 목사'로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네. 훗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나.  
그러려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하네. 훗날 기억되고 싶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야 하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지. 그가 죽자 사람들이 급히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가 도착하니 다수의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다비다)가 만들어 준 속옷과 겹옷을 내어 보이며 그의 행실을 이야기 했다네 (행9:39).  
지금 잘 살아야 하네. 지금 본이 되게 살고, 지금 선하게 살고, 지금 베풀고, 지금 충성되어 일해야 하네.  
누군가의 평가는 지금의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봉우

:: 책을 펴다 ::

# 위대한 리더십

1953년 여름, 전쟁은 휴전회담을 사이에 두고 그 치열함을 더해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적과의 싸움뿐 아니라 더위라는 적과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한 부상병의 신음이 주위의 전우들을 안타깝게 했다. 부상병은 연신 물을 찾아대는데, 전우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때 한 병사가 허리춤에서 수통을 빼더니 부상병에게 건네 주었다. 물은 한 모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허겁지겁 수통을 받아든 부상병은 순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대장부터 선임하사 등등 여러 전우들의 시선이 그 수통에만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고통 중에도 입에 대었던 수통을 먼저 소대장에게 조용히 건넸다. 소대장은 대원들을 둘러본 뒤 수통을 입에 대고는 별걱별걱 소리 내어 물을 마시고는 그 수통을 선임하사에게 넘겨주

었다. 수통을 받아든 선임하사도 별걱 별걱 물을 들이켰다. 분위기를 읽은 모든 대원들도 얹은 미소를 서로에게 나누며 물을 소리 내어 마셨다. 수통의 물은 전혀 줄지 않았다. 다들 소리만 내고 물은 마시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물은 고스란히 부상병에게로 넘겨졌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목이 타던 갈증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한 단체를 구한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리더십을 보고 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이다. 그분은 대업을 앞에 두고 모든 책임을 지려 하신다. 단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신다. 그분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예수중심편집실

## 페루집회를 위한 21일 작정기도

**8월 14일(월) ~ 9월 3일(주일)**

:: 생명의 말씀 ::

#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2022년 1월 23일 주일 늦은 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총회장 목사님께 한 글자씩 핸드폰에 문자를 썼다.  
"목사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정을 심었습니다.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찾아뵙고 무릎 꿇고 빌어야 마땅한데 먼저 문자로 용서를 바랍니다."  
사건은 이랬다. 양산으로 새롭게 파송된 권 목사님께 하나님께서는 넓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고,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다. 그런데 특공대 목사님들과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 큰 사달이 났다. 새로 얻은 양산교회 성전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이었고, 나는 권 목사님께 성전을 임시로 꾸미고 얼른 부흥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라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얘기했다. 이 내용이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되었고, 목사님께서는 '양산교회 목사에게 부정을 심은 사람이 누구냐고, 주일예배에 단에서 불호령을 하셨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큰 깨달음도 주셨다. 진심 이든, 선의든 그것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다음 날인 24일 월요일에 예정대로 특공대 목사님들은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그 주 수요일에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회개한 그 목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한 다윗 같은 자'라고 오히려 좋게 말씀해주셨다. 그 후 나는 권세를 거스르는 말은 입에도 담지 않고, 부정적인 말은 들어도 절대 동의하지 않고 흘려버린다.  
지금 우리 서울 본교회는 새로운 예배장소를 놓고 총회장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흥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려는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께 부여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민14:28)는 말씀처럼, 우리는 일체 부정의 말에 동의하지 말고 부정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장순천 목사